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동*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라살아라네타대학의 위치는 우버 또는 그랩 이란 어플을 이용하여 택시를 타면 어디든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이동할 수 있다. 대학 시설은 한국 대학들의 시설과는 비교되지만 지내는데 있어 아무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 근방 분위기 또한 위험하지 않고, 차가 많은 편이나 한국처럼 골목길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를 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p>
수업	<p>수업은 레벨테스트에 따라 교재가 나뉜다. 교제를 위주로 한 수업이 진행되며, 그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주중에 한 번씩 시험을 본다. 맨투맨 시간 3시간이 있고, 소그룹(6명)시간 2시간, 그리고 대그룹(12명)시간이 3시간이 있다. 맨투맨 시간에는 교재에 있는 주제에 대해 맨투맨 선생님이 대화를 유도해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잘못된 문장으로 대답을 할 경우, 선생님이 바른 문장으로 고쳐서 반복 학습한다. 그리고 나의 경우, 평소에 '음식을 주문할 때', '택시를 탈 때', '길을 물을 때' 등, 정확한 표현에 대해 질문을 하여 답을 얻고, 그것을 평상시에 반복하여 사용하곤 했다. 소그룹 대그룹시간에는 선생님을 주관하여 그룹멤버들과의 토론을 진행하거나, 액티비티를 하였다.</p>
Activity	<p>4주차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3가지의 활동이 주어졌다. 민도르섬 여행과 따가이따이 화산섬, 팍상한 폭포 체험이다. 민도르섬 여행은 참가비가 한국돈으로 10만원 정도이며, 바다에서 하는 활동비용, 식대등을 포함하여 6~8만원 정도 사용하였다. 큰 돈을 연수 1주차에 사용하여 남은 기간이 부담스럽게 생각되곤 했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나머지 활동을 참여하지 않고 몇 인원과 다른 활동을 하였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뜨겁거나 따뜻하다. 하지만 건기였기에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
안전	대학 근처는 안전하다. 어딘가로 관광을 떠날 때 약간의 경계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크게 위험한 경우는 없었다.
숙소	타지에 나와 통금 22시라는 큰 제한을 받아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을 없지만, 가끔 변기와 수도가 막혀 곤란을 겪곤 하였다.
식사	식사는 기숙사 식당에서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식사이다. 기숙사 식당의 음식만큼 우리의 입맛에 맞는 식당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한두번정도는 경험 삼아 현지 식당을 방문할 수 있어도, 결국엔 돈 아깝고 입맛 버리고 속 버리는 경험을 할 것이다.
교통	대중교통, 택시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잘 발달되어있다. 먼 거리,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 하였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사비	350,000	출국 전 지참
사비	100,000	현지에서 출금
합계	1,14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뜻 하지 않게 돈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을 몇 보았다. 가슴에 매고 다니는 '힙색'을 이용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돈을 잃어버리는 경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크로스백이나 백팩 등 보단 힙색이 편리하고 더욱 안전하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출금카드를 챙기는 것이 좋다. 수수료가 대략 5000원으로 비싸지만 해외에서 돈 조금 아끼는 것 보다 약간의 지출을 더 하여 추억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수업 때 담당 선생님들이 기념품을 챙겨주고 작별인사를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하나 준비하지 못해 손편지를 준비하였지만, 마음이 편치는 못했다. 한국에서 출국 전에 적당한 선물 여러 개 챙겨가서 작별 선물로 주면 좋을듯하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첫 해외 경험이었다. 타지에 대한 두려움과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처음 인천공항에 모이고, 하나의 두려움이 추가되었다. 혼자 지원한 탓에 죄다 초면인 사람들 이었다. 여권수속절차를 모두 받고 탑승했다. 정 가운데 자리를 배정 받아 불편 하였지만, 다행히 옆자리 앉은 친구가 호스텔에서도 룸메이트로 배정받았다. 그렇게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데 문제는 없었다. 그래도 출국 전에 몇 번 OT를 진행하여 서로간의 친분을 쌓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레벨테스트를 무사히 마치고, 소그룹, 대그룹이 정해진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 짧은 한 달 동안 즐거웠고, 보람찬 어학연수였다. 아직 아침에 눈을 뜨면 수업을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한 겨울밤의 꿈'이라고 표현해도 아쉽지 않다. 정말 꿈과 같은 시간들이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남은 방학이 약 30일 가량 남았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적은 시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엔 많은 시간이다.. 회화학원에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짧은 시간동안 썼던 표현들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언어는 습관이라 생각한다. 계속 사용해서 습관처럼 만들어야한다. 그러기에 1개월이란 시간은 매우 짧았고, 다음 프로그램이 계획된다면 최소 2달은 계획되었으면 좋겠다. 1개월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처음 몇 일간 고생을 하였다. 1주차가 지났을 때엔 몸무게가 3kg이나 감량되었다. 음식이 짜고 향이 자극적이어서, 잦은 복통이 있었다. 그나마 기숙사 식당 음식이 한국음식과 비슷하여 잘 먹었다.

그럼에도 나에겐 매우 즐거웠던 순간들 이었고, 소중한 추억이며, 감히 한 겨울날의 꿈 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첫 날 시장에서 망고를 사와, 기숙사에서 다 같이 먹었다.



첫 주말 친해진 친구들과 다 같이 근처 술집에 가서 맥주를 마셨다.



뱀을 만지는데 정말 식겁했었다... 온 몸에 땀이;;



사우나&마사지 받고 나와서 찰칵!



대그룹 ACTIVITY!



대그룹 ACTIVITY!



대그룹 ACTIVITY!



작별인사